

가정부부터 관공서까지... 일상 속 유용한 'AI 개발'

AI·VR·AR, 미래를 연다

(9) 씨니팩토리

"개발 중인 AI 플랫폼 솔루션을 상용화 해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AI 플랫폼' 개발을 위해 창업에 뛰어들어 '씨니팩토리'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주며 지역 AI 스타트업계의 귀감으로 거듭나고 있다.

AI 및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주력 사업 분야인 씨니팩토리는 2017년 4월 창업한 이래 제조환경 및 일상 소비재, 신재생에너지, 교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보다 편리한 혁신 아이템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

창업 첫째 매출은 8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8-2019년 16억, 2020-2021년 26억 등 매출이 큰 폭으로 뛰면서 급속한 성장으로 주목 받았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만든다는 포부로 시작한 씨니팩토리는 현재 우수 기술 인력과 자체 연구개발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AI 플랫폼 사업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특장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생산공정관리 (POP) 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 등 23건의 지적재산권 (특허 4건·상표 3건·저작권 16건)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씨니팩토리만의 강점 중 하나다.

현재 씨니팩토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증강 및 결합 탐지 시스템 'AI VISION',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전력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SUNNY EPIS', 인공지능 기반 의류 검색 및 추천 시스템 'AI FASHION' 등이다.

이중 AI FASHION은 그간 B2B (기업 간 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오던 씨니팩토리가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



씨니팩토리가 'AI FASHION'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동구 아이플렉스에 조성한 무인매장.

창업 5년차... AI·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전문기업 맞춤형 의류 추천 무인매장·태양광 모니터링 출시 23개 지적재산권 취득... '독창적 프로그램' 강점

로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발 경험을 집약해 만들었다.

AI 기술로 맞춤형 의류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인 AI FASHION은 올해 2월부터 광주 동구 아이플렉스 1층에 무인매장을 조성, 테스트 베드 및 쇼룸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1천100명 가량의 출입·정산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고도화 과정을 거쳤다.

개인 착용 의류 데이터 활용 및 업로드, 맞춤형 의료 추천 순으로 전개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대형 프랜차이즈 온·오프라인 무인의류 매장 활용을 효율적으로 도울 전망이다.

무인매장 (오프라인)과 인터넷 쇼핑물 및 클라우드 플랫폼 (온라인) 등 두 트랙

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제품은 오프라인은 10월, 온라인은 11월 각각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전남 소재 패션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 개발 완료와 동시에 적용돼 의류 쇼핑몰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올 초부터 태양광 업체 중 두 곳과 협력해 현재 데이터 수집 및 고도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전력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SUNNY EPIS'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 AI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제품이다. 오는 10월 개발이 완료되면 연말 중 업체 매칭을 통해 도입 기업의 유지·보수 편의와 수익 예측 및 수익성 극대화를 도울 전망

이다.

AI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제조현장 부품결합탐지 원스톱 솔루션 'AI VISION' (자동검사제어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존 이미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결합 탐지 정확도와 높은 하드웨어 의존성, 구축 비용 등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에 주목한 씨니팩토리는 AI VISION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솔루션을 제안한다.

난반사 최소화와 이미지 생성 기술을 통해 대부분 환경에서 결함을 탐지해 99% 결합 탐지 정확도를 보유하며 기존 제품보다 절반 수준의 구축 비용을 자랑하는 해당 제품을 통해 씨니팩토리는 결합 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용 80% 감소, 투입 인력 75% 감소, 생산성 30% 증가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씨니팩토리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에서 보다 나아가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템 추가 개발을 통해 'AI 중심도시'라는 광주의 명성에 걸맞게 인공지능 활성화

이지훈 대표이사

"반짝이는 공장"답게 글로벌 AI기업 될 것"

"씨니팩토리는 온라인 ID로 사용하던 씨니 (Sunny)와 공장 (Factory)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로, '반짝이는 공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걸맞게 지역을 넘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워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았던 이지훈 (42) 씨니팩토리 대표이사는 씨니팩토리의 미래를 '글로벌 AI 기업'으로 잡았다.

스물다섯, 직장 생활을 시작으로 30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대기업 협력사에서 근무한 이지훈 대표는 해당 경력을 토대로 ERP (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해 직접 느낀 불편함을 보완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창업했다.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창업에 뛰어들어 터라 커다란 굴곡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규제, 기업들 다름 등 예상치 못한 장애물 앞에서는 머뭇거릴 수 밖에 없었다.

이 대표이사는 "처음 창업이다 보니 급변하는 규제 등 변수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극복이란 없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IT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변화해 패러



다임에 발맞춰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기술력과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술력에 의해서 투자자 지원, 기업 협력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기 때문"이라고 기술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이사는 현재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손을 보태고 있다.

창업에 대한 궁금증, 어려움 등을 담은 '스타트업 뽀개기' 책을 펴냈으며 지난달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후배 창업자를 돕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앞으로 다가올, 한 국형 뉴딜 및 광주형 AI에 발맞춰 씨니팩토리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지훈 씨니팩토리 대표이사는 "가정부부터 가게, 공장, 관공서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작업 능률을

높이는 등 보다 더 편리한 혁신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AI 중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은행, 홍보대사 안산 선수 격려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도 함께 초청

광주은행은 최근 홍보대사인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본점에 초청,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선수는 지난해 7월에 열린 '2020도교올림픽'에서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관왕,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2022 양궁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최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도 2관

왕에 등극했다.

이에 광주은행은 안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선전을 기원했으며 안 선수가 재학중인 광주여대 양궁부 김성은 감독도 함께 초청했다. 김 감독은 안 선수를 비롯해 기보배·최미선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으며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까지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2019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하고 남자 배드민턴팀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체육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양궁팀 창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수희기자

광주産 애니메이션 '빅풋패밀리' 사업화 가속

(주)캠프파이어애니웍스 제작...유쿠 채널 인기차트 1위 성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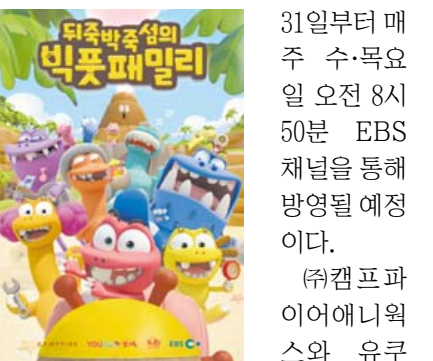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광주 콘텐츠기업 (주)캠프파이어애니웍스의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가 중국 알리바바 계열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인 유쿠 (YOUKU) 어린이 채널 방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콘텐츠 사업화를 알렸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7월 23일 첫 방영을 시작한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가 유쿠 어린이 채널 인기

차트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등 중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는 11분 26부작 TV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과제에 선정돼 2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한국 EBS와 중국 유쿠 (YOUKU)가 함께 공동제작에 참여, 한국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전 8시 50분 EBS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주)캠프파이어애니웍스 유쿠 어린이채널은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의 초반 상용세를 이어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방영과 동시에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동캠페인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복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점포수 : 260곳
· 시장면적 : 10,582㎡

· 주요취급품목
- 생식물(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 (반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정받지는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